

요즘 영화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가지 이유〉

한국영화 20년 퇴보시킨 영상 성희롱

어처구니 없는 여성비하에 신세대조차 분노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여과없이 대담하게 드러낸 〈맥주가 애인보다...〉.

‘따’ 먹을 수 있다”(박종원 감독). 제6화 “맥주는 걸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장길수 감독). 제7화 “한번 마신 맥주를 평생 마셔야 될 의무는 없다”(강우석 감독)의 7가지 제목으로 에피소드를 펼쳐 간다. 여기서 “맥주=여성”이란 공식이 성립하면서

것으로 유혹을 시작하여 “스키를 타고 싶다”는 암시로 1:2로 정사를 즐기고 싶다는 변태적 욕망까지 내보인다.

역설로 시도한 회화화는 맥주캔의 상표를 들여다 보며 “설마 이 속에 소주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조나단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것은 강박관념으로까지 남성들에게 작용하는 듯한 ‘순결 이데올로기’이다. “치녀라면 더이상 바랄게 없어”를 되뇌이던 조나단이 여자들과의 정사 후 미친듯이 혈혼을 찾다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짓는 표정은 연민을 자아내지까지 한다. 더구나 그의 순결 강박관념의 원인은 “참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입시키는 어머니임이 도처에 암시된다.

영화평론가 김정룡 씨는 한국 영화계의 대들보들이 저지른 이 객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여성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전근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는 여성의식, 남성의식, 사회의식 같은 건 일체 끌어 오지 말고 그냥 관객과 즐겁게 만나는 영화를 만들자는 것”이라는 공색한 변명 앞에선 절망감까지 맛보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재미 추구”란 그들의 의도는 그들이 겨냥한 신세대들이 그들 생각대로 그렇게 단순하지도, 경박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섹스 지상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완패를 당했다. 영화의 종영과 함께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이를 입증한다.

극장문을 나서던 복학한 대학 3학년생인 한 남학생은 “따로따로 각 에피소드를 볼 땐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된다. 또 여성상 왜곡을 넘어서 남성상까지 왜곡시킨 것 같아 불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함께 관람했던 같은 학년인 그의 여자친구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다. 유니버스 형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역시 나였다’라는 반응으로 우왕좌왕했던 7인 감독의 주제 의식의 결여를 꼬집었다.

〈이은경 기자〉

“여성단체 불매운동 안하나”

7인의 중견감독 경력에 ‘오점’

여장 남자(문수진 분-제6화)와의 허를 찌르는 사랑과, 남성성기 절단을 암시하는 가위를 양손에 든 가발 디자이너(방은진 분-제7화)와의 정사에서 극대화된다. 조나단은 금기인 소주를 마시고 치녀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옆집에 사는 노처녀 가발 디자이너를 범해 결국 결혼으로까지 끌려 가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범람하는 ‘간 큰 남자 시리즈’에 이어 이 영화는 남성들의 비뚤어진 피해 의식의 위험 수위를 웅변적으로 영상으로 풀어 놓고 있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다. 70년대 〈별들의 고향〉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저 지겨운 ‘순결 콤플렉스’가 한국 영화계에 본성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라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한다. 영화 제작의 총지휘를 맡은 박철수 감독의 “기획 의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가?”란 영화의 본질성을 의심케 하는 영화 한 편이 요란스러운 선전과 함께 서울 한복판의 개봉관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있다. 신세대식 자유분방함이란 미명 아래 포르노 영화와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난잡한 성적 묘사가 곳곳에 남발된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가지 이유〉. 도발적인 제목의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한다는 7인의 중견 감독이 모여 기성 세대의 음탕한 농짓거리를 공개적으로 영상화시켰다는 데서 지독한 실망과 함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김유진, 〈게임의 법칙〉의 장현수, 〈하얀 전쟁〉의 정지영, 〈301·302〉의 박철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박종원, 〈은마는 오지 않는다〉의 장길수, 〈투깝스〉의 강우석 감독. 이 일곱 감독들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자

신들의 정상 궤도에서 그토록 대담한 이탈을 시도했는지 관객들을 시종일관 궁금하게 만든다.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가지 이유〉의 특징은 “홍행 을 위해 여성·남성을 왜곡시킴으로써 저질 성상품을 만들어 냈다”란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재미 교포 조나단(한재석 분)과 그를 둘러싼 일곱 여인과의 황당한 에피소드가 중심 줄거리.

유니버스 영화와는 구별되는 ‘시퀀스무비’를 자칭하는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가지 이유〉는 제1화 “맥주는 내가 다른 맥주를 마셔도 질투하지 않는다”(김유진 감독), 제2화 “언제나 맥주는 내가 처음 오픈한다”(장현수 감독), 제3화 “맥주는 친구와 나누어 마실수록 더 맛있다”(정지영 감독), 제4화 “맥주는 누구라도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다”(박철수 감독), 제5화 “맥주는 언제 어느때나 망설임없이

각 에피소드가 끝나갈 무렵엔 관객들은 이 제목들이 결국 반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영화 전체를 흐르는 조나단, 아니 7인의 남성 감독들의 기본 인식은 “본질이 요부인 모든 여성은 결국 어리숙한 남성보다 강하다”라는 잠재적 피해 의식, 강한 소유욕과 독선을 지닌 음반회사의 여사장(신희조 분-제1화)은 “병신, 아는 것 많아 좋겠다”, “병신, 머리 좋아 좋겠다”를 입버릇처럼 되뇌이며 주변 남자들의 기를 죽인다. 방송국의 당돌한 리포터(김예린 분-제3화)는 자신의 팬티를 벗어 처음 만난 남자에게 선물하는